

韓·日 英語 英文學 教育 比較 考察*

—大學의 教科課程을 中心으로—

金 秀 宗

目 次

- | | |
|-----------------------------------|--------------------------------------|
| I. 序 言 | IV. 우리나라 大學 敎養 英語 및 英語 英文學 敎育과 그 問題點 |
| II. 韓·日 英語 英文學 敎育의 背景 | V. 結 語 |
| III. 日本의 大學 敎養 英語 및 英語 英文學 敎育의 現況 | |

I. 序 言

우리나라 大學은 敎養課程에서 英語를 가르쳐 왔으며 英語를 전공하는 學科에서는 英語學 英文學 分野의 專攻科目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英語의 重要性이 날로 強調되는 것에 비해 大學의 敎養 英語 敎育은 授業時數 不足, 授業時間 運營의 不合理 등으로 그다지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英語 英文學 專攻敎育에 있어서는 人文系의 英語 英文學科와 師範系의 英語 敎育科가 거의 同一한 教科課程을 운영해왔고, 이에 대한 論難은 師範大學의 無用論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근간 大部分의 大學의 英語敎育科는 師範敎育의 特性을 살린 獨自的인 教科課程을 개발해 가는 추세에 있다.

政府는 '70년대에 들어서면부터 大學敎育改革事業에 착수하여 그 事業의 일환으로 實驗大學을 시행케 함으로서 大學의 水準向上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敎授確保, 施設擴充 등 必須的 先行條件을 充足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結果的으로는 外面的 形式이 변모되었을 뿐, 實驗大學의 여러가지 特性이 모두 有名無實해 갔다. 이러한 가운데 유독 卒業에 必要한 學點만은 減縮된 채로 보류되고 있어 오히려 大學敎育의 質的 低下를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다.

從前의 160學點에서 140學點으로 감축한 결과 與件의 具備가 充足되지 않는 가운데, 專攻科目

師範大學 副敎授

* 本 研究는 1984年度 文敎部 研究助成費의 支援에 의해 수행되었음.

과 敎養科目의 配定 문제에 혼란과 갈등이 심해졌으며 制限된 時間表 속에서 어느 것이 優先順位에 대한 치열한 論爭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英語英文學 專攻課程에 있어서도 語學, 文學, 英語技能, 敎育, 敎職 등 각 分野別 科目配定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本稿는 이러한 過程 속에서 변모된 現行 大學敎養課程의 英語科目과 英語英文學 專攻課程을 再考해 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4年制 大學의 敎育課程을 운영하는 日本의 大學의 敎養英語와 英語英文學 敎育의 現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比較 考察을 위하여 本稿는 먼저 韓日 두 나라의 英語敎育의 背景에 대하여 關心을 가졌다. 大學이나 英語敎育은 하나의 傳統 속에서 形成되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각기 特徵있는 日本의 4개 大學을 선정하여 그 敎科課程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大學 敎科課程과 比較함으로써 英語 및 英語英文學 敎育의 改善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韓·日 英語英文學 敎育의 背景

1. 英語敎育의 背景

「英學」이라는 형식으로 시작된 日本의 英語敎育은 西歐文明을 攝取하여 日本을 近代化하려는 啓蒙運動이었다. 1808年 英國 軍艦 Phaeton號가 日本의 長崎港에 亂入한 事件 이후 日本幕府는 蘭學(和蘭學)에서부터 英學으로 政策을 전환하였다. 이어서 明治時代에 계승된 英語敎育은 文明開化의 手段으로 선택되고 一般國民敎育의 가장 중요한 課題로 登場하게 되었다. 日本의 英語敎育은 이러한 近代化 政策 속에서 成長 發展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英語學習에 대한 熱意는 초창기부터 매우 旺盛했다. 이 사실은 明治 7年(1874)의 統計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官公立의 英語學校가 82개교 英學生의 총수는 5,957명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歐美文化의 風潮가 英語學習에 더욱 拍車를 가하게 하였으며, 神田乃武는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 in Japan”(1895)이란 글에서 「要件대 言語의 점에서 본다면 日本은 英國化된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¹⁾

本是 英語敎育은 敎養主義의 基盤 위에서 시작되었다. 英語學習의 초창기 日本에는 條約改正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外觀만이라도 빨리 西歐化하여 日本이 野蠻國이 아니라는 것을 誇示할 必要가 있었다. 그래서 地位의 高下를 막론하고, 英語를 배우고 西歐文明을 받아들이는 일에 급급하였다. 一部 上流社會人들은 英語會話도 學習하였으나 一般人들은 오로지 讀解만을 學習하였다. 이 實用보다도 敎養을 重視하는 傳統은 英語敎育의 基盤이 되고 그후 오래도록 支配的인 勢力이 되고 있다. 이 敎養主義의 傳統의 功過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意見이 엇갈리겠으나 그 歷史的 事實과 그 必然性과는 정당하게 認定되어야 할 것

1) 石橋幸太郎, 「英語敎育」開拓社, p. 6.

이다.

초창기의 英語教育은 극히 유치한 方法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發音은 問題視되지 않았고 번역은 直譯이며 日本式 漢文 讀解法의 方式이 채택되었다. 例를 들면 “I prefer tea to coffee”를 번역할 때의 順序로 각 單語 밑에 번호를 붙여 I prefer tea to coffee 「나는 거피에 이르도록 차를 택한다」는 식의 번역을 했다. 이처럼 幼稚한 方法에 의해서 시작된 讀解 위주의 教養主義 傳統은 때때로 實用的 價値를 主張하는 사람들의 挑戰을 받으면서 이어져갔다.

1880년대에 들어서 英語教育 改革의 氣運이 漸高되면서 英語教育의 不振에 대한 하나의 救濟策으로 實用英語의 學習을 장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氣運의 代表的 著述이 外上正一의 「英語教授法」(1897)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文部省이 편찬한 「正則英語讀本」의 편찬취지 및 使用法을 해설한 것으로, 從來의 「變則」을 「正則」으로 是正할 必要性을 力說하고 있는 것인데 口頭練習을 重視하고 容易한 文章을 듣기와 말하기를 통하여 反復練習한다는 말하자면 言語習得의 正道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英語教育 改革에 대한 主張은 西歐에서 主唱된 外國語教育 改善意見에 호응하는 것이었다. 당시 Liverpool大學의 독일어 강사인 Wilhelm Viëtor, Berlitz Schol을 設立한 Maximilian Berlitz 등의 주장이 점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불란서의 François Gouin의 저서는 1892년 Haward Swan과 Victor Brétise에 의해서 英譯되어 *The Art of Teaching and Studying Languages* 라는 제목으로 出版되었다. 이들의 뒤를 이어 Henry Sweet나 Otto Jespersen도 Viëtor와 마찬가지로 音聲學者의 立場에서 外國語 教育의 改善을 주장했다. 그러나 變則教育에 不滿을 품었던 당시의 先覺者들이 재빨리 받아들였던 것은 한낱 理論의 紹介에 불과했으며 改革案의 實踐에 착수하게 된 것은 1922년 Harold E. Palmer가 日本으로 건너간 다음의 일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韓美修好條約이 맺어진 다음해인 1883년 同文學(英語塾)이 세워진 때부터 英語教育이 시작되었다. 하기는 우리나라도 이보다 훨씬 以前부터 英語文化圈과의 間接的인 接觸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英語教育을 통하여 先進文明을 받아들이고 國家의 近代化를 촉진한다는 次元 높은 政策을 수립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韓美修好條約(1882)과 韓英修好條約(1883)을 契機로 하여 直接的인 關係로 發展되어갔던 것이며 政府로서는 英語解得者 養成의 必要性이 現實的인 課題로 登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同文學, 育英公院, 英語學校, 官立英語學校로 이어지는 教育機關을 통한 우리나라의 英語教育은 대체로 通譯官, 外交官, 政府官吏, 實務者 등을 養成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教育機關에서 시행되는 英語教育은 實用的인 面이 重視되었고, 外國語를 학습하여 外國文化를 理解하고 받아들인다는 水準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²¹

그러나 國民들 가운데서는 英語에 대한 關心이 至大해졌으며 英學徒의 수도 增加해갔다. 당시 學生들의 英語學習의 動機는 出世를 위한 功利的인 것이었으므로 學習意慾이 旺盛했고 英語習得의 速度가 매우 빨랐다. 學習이 能率的이었던 理由로는 native speaker에 의하여 Direct method 적인 教授法이 使用되었고, 모든 科目이 英語로 교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

2) 文龍, “舊韓末의 英語教育”, 「영어교육」 12호, 1976.

는 것은 우리나라의 漢文工夫 方式이 채택되어 英語文章과 單語를 反復 暗誦하는 學習方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日本式 漢文讀解法에 의한 學習方法과는 對照的이다. 더우기 우리 國語의 音素分布가 英語와 비슷한 것에 비해 日本語의 音素가 英語의 音素에 대응하는 수가 극히 制限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英語教育은 특히 그 實用的인 면에서 크게 발전할 소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外交官으로 滯韓中이던 信夫淳平가 韓國人이 外國어 熟達에 민숙한 것과 發音의 絢麗한 것을 보고 驚歎하고 있는 事實에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³⁾ 韓日合併만 없었더라면 우리의 英語教育은 다른 樣相으로 發展해 갔을 것이며, 우리의 獨自的인 學習方法이 일찍 定着되어 이 方面에서 日本을 크게 凌駕했을 것이다.

舊韓末 우리의 英語教育은 培材學堂, 梨花學堂, 倣新學校, 貞信女學校등 宣敎事業의 一環으로 設立된 教育機關에 의하여 그 基盤이 더욱 다져져갔다. 그리하여 1908년 梨花學堂의 高等科 敎科目에는 「英文學」이란 명칭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舊韓末의 英語教育은 결국 제대로의 英學者 하나를 輩出해 내지 못한 채 韓日合併에 의해서 中斷되고 말았다. 물론 그 이후에도 英語教育의 命脈은 이어져나가는 하였으나 日帝時代의 教育은 모두가 日帝의 方式에 의한 것이었다.

2. 大學의 英語英文學 敎育의 背景

大學에서 英語敎育을 시작한 것은 東京大學이 처음이다. 明治時代의 日本은 西歐 先進國家의 敎育制度를 模倣하여 各級 學校를 設立해 가는 가운데 1877년 처음으로 東京大學을 設立하였다. 明治 19년(1886) 東京大學은 文學部의 內容이 약간 변경되면서 文科大學에 계승되고 당초 哲學科, 和文學科, 漢文學科, 博言學科의 4개學科였던 것이 그 다음해 9월에 史學科, 英文學科, 獨逸文學科의 3개學科가 增設되어 7개學科가 되었다. 이것이 現在 日本의 大學이나 短期大學에서 イギリス 文學科, 英米文學科, 英文學科, 英語學科 등 여러 名稱으로 불리우고 있는 「英文科」의 發足이다.⁴⁾

東京大學의 英文科는 制度上 開設되기는 하였으나 첫해에는 志願者가 없었고, 다음해인 1888년 立花政樹 1명이 入學하였다. 그는 英文科를 志望한 動機에 대하여 「당시 무슨 文學이나 語學을 研究하려는 目的이 아니라 단순히 敎師가 되기 위하여 英文科나 獨文科에 入學했던 것이며 실제로 語學敎師는 不足한 時代였다」고 술회하고 있다.⁵⁾ 그러나 당시 英文學을 열심히 공부한 學生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Shakespeare의 大家인 坪内逍遙는 理財學科 출신이었으나 前身인 東京大學 文學部에서 英文學을 공부한 사람이다.

英文學科 開設當時의 學科課程은 學年制이며 다음表와 같다.⁶⁾

3) 信夫淳平, 「韓半島」, 東京, 1901, p. 127.

4) 上野景福, 「最初の英文科卒業生 立花政樹」, 「靑語青年」1974. 11.

5) 立花政樹, 「その項を語る」, 「東大英文學會會報」, No. 9, 1938. 2.

6) 「帝國大學五十年史」(上冊) pp. 1293-4.

第 1 年

哲學史及び論理學	第 1 期	每週	3時
	第 2 期	同	5時
	第 3 期		
史 學	1年間	同	3時
獨逸語	同	同	3時
羅匈語	同	同	3時
佛蘭西語	同	同	3時
英 語	同	同	7時

第 2 年

哲學史及び心理學	1年間	每週	3時
史 學	同	同	3時
獨逸語	同	同	3時
羅匈語	同	同	4時
東洋哲學	同	同	2時
音學作詩チュートニツキ語及びロマンス語發達史	同	同	2時
英 語	同	同	7時

第 3 年

倫理學	第 1 期	每週	3時
審美學	1年間	同	2時
獨逸語	同	同	3時
羅匈語	同	同	4時
教育學	同	同	2時
英 語	同	同	9時

이것이 大學의 敎科課程의 기초가 된 것이며 傳統의 根源이 되는 것이다. 敎科課程의 內容을 보면 歷史 哲學 心理學 倫理學등 오늘날의 敎養科目, 獨逸語, 佛語 등의 外國語, 라틴어 등이 있고, 英語는 分野別 科目別로 細分化되어 있지 않으며 聯關된 科目으로는 古代 中世英語, 또는 英語發達史만이 獨立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敎養과 外國語가 中心이 되고 있으며 專攻 科目은 아직 細分化되어 있지 않다.

당시에는 英文學史 강의는 없었다. 그러나 主任敎授格인 James Main Dixon 敎授는 Taine의 「英文學史」(英譯)나 Gosse의 18世紀 英文學史를 공부하도록 권했다. 또한 一般概念을 터득하기 위해 各作家로부터의 拔萃集 *Great Authors*(3 vols.)를 읽어나갔다. Essayist로서 Dixon 敎授가 추천한 이는 Macaulay와 Mathew Arnold이며, 後者의 *Essays in Criticism*을 敎材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밖에 Sir Walter Scott: *Lady of the Lake*, Byron: *Childe Harold's Pilgrimage*, Milton: *Paradise Regained*, Shakespeare: *Macbeth*, *Cymbeline*, *As You Like It*, *King Lear*, George Eliot:

Silas Marner 등이 교재로 사용되었다. 小説을 읽도록 권유했으며 英作文의 指導도 있었다.⁷⁾

이러한 學習內容을 볼 때 教科課程上으로는 英語라고 되어 있으나, 內容은 오늘날의 그것과 매우 類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英文科의 각 genre별 科目, 詩, 小説, 戲曲, 隨筆, 批評 등과 Shakespeare, 英文學史, 英語史, 作文, 文法등의 科目을 想定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時代적으로 보아 당시 英國은 Victoria朝의 末期에 있었고 오늘날 처럼 美國文學이 脚光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오랜 歲月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리고 Shakespeare는 英文學의 代名詞로 간주되고 文學에 偏重되어 있는 것도 오늘날 처럼 英語英文學 分野의 學問이 고루 發展한 時代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東京大學에 이어 官立으로 京都大學, 東北大學, 九州大學 등에 이어서 우리나라 땅에도 京城大學(1924)이 設立되는 가운데 英文科가 開設되었다. 私立으로서는 明治 23년(1890) 慶應義塾에 大學部가 設置되는 것을 효시로 하여 1902년 東京專門大學校가 早稻田大學으로 개칭되었으며, 明治, 立教, 法政大學등 여러 大學이 設立되면서 각각 特色있는 教科課程을 發展시켜 갔다. 英語는 舊制高等學校의 가장 重要한 科目이며 學部로 進學할 때는 英語試驗만을 치렀다. 專門學校의 文科에서는 英語英文學도 가르쳤고 學部에서는 卒業論文이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梨花, 延禧, 普成 등 專門學校가 設立되었다. 여기에서 1930년대의 延禧專門學校 文科의 英語英文學 分野의 科目을 보면 英文學 코-스에 英語音聲學, 英作文, 英會話, 英文法, 英語讀本등이 있었고 英文學 코-스에는 英文學史, 英詩, 英小説 등이 있었다.⁸⁾ 이 課程에는 가장 基本的인 重要한 科目들이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現在의 課程에 많이 接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40년대의 京城大學의 教科目的 內容을 간추려 보면, 英語發達史, 古代 및 中世英語, 16-17世紀英國批評史, Shakespeare: *Hamlet, Julius Caesar, Tempest, Venus and Adonis, The Rape of Lucrece, King Lear, Romeo and Juliet, The Merchant of Venice, Antony and Cleopatra, Macbeth, Othello*, Jespersen: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Oliver Goldsmith: *She Stoops to Conquer*, Percy B. Shelley: *Prometheus Unbound*, 희랍語, 라틴語, 佛文學講讀, 哲學概論, 教育學 등을 들 수 있다.⁹⁾ 이 教科目的 內容은 이 보다 50년 전의 東京大學의 學習內容과 類似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教科課程上의 하나의 傳統性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1920년대는 第一次 世界大戰의 영향으로 英語英文學에 대한 學問이 많이 普及된 時代였다. 英語教育에 있어서도 Palmer가 이른바 Direct oral method를 공개하여 이 方法을 實踐한 일부 中等學校에서는 큰 成果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0년 대에 들어서 日本은 軍國主義의 영향으로 英語를 排擊하기에 이르렀고, 이 方面의 學問은 크게 發展하지 못하였다.

戰後 英語英文學에 대한 關心은 다시 高潮되었다. 특히 美國의 영향이 顯著해졌으며,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의 實用英語教育에 대한 새로운 方法이 활발하게 모색되어 갔다. 英語英文學

7) 上野景福(1974), p. 370.

8) 全炯國, "英語學教育의 回顧와 展望", 「영어영문학」 72호, 1979, p. 395.

9) 趙成植, "韓國에 있어서의 英語學", 「現代英語學研究」, 新雅社, 1982, p. 2.

專攻課程에는 過去에 等閑視되었던 美國文學의 科目들이 새로운 認識 속에서 登場하게 되었다. 그리고 語學分野의 研究도 활발하게 이루어져갔다. 이렇게 되어감에 따라 課程의 명칭도 英語學·英米文學 專攻課程으로 불리워지게 되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傾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으나, 日本의 大學들은 각 大學이 지켜온 傳統 속에서 이러한 學問의 추세를 節度있게 받아들이고 각기 特性있는 教科課程을 慎重하게 개발해갔다.

光復後 우리의 英語教育和 英語英文學 研究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는 混亂의 와중에서도 1948년 國立서울大學校를 設立하고 師範大學도 開設하였다. 그후 많은 大學이 속속 設立되고 發展해가는 가운데 英語英文學 教育도 성숙해갔다. 많은 英語英文學徒들이 輩出되었으며, 美國을 비롯한 英語文化圈에서 研究한 우리의 學者들이 教育現場에서 學生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本來 美國의 制度를 모방하여 出發한 우리의 大學은 오래도록 日帝時代의 舊制大學의 殘滓에서 完全히 벗어나지 못했었다. 우리나라 大學이 英語教育을 重要視하는 것은 매우 多幸하고 當然한 일이나, 大學教育 改善을 위한 우리의 意志는 그동안 卒業學點만 例로 보더라도 당초 180學點에서 160學點으로 그리고 現在의 140學點에 이르는 變遷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때로는 너무나 性急한 決斷을 내리는 事例를 빚게 하였으며, 結果적으로 意慾에 부합되는 實質的인 內實을 기하지 못한 채 많은 大學들이 劃一的인 模型을 形成해 가고 있다.

Ⅲ. 日本의 大學 教養英語 및 英語英文學 教育의 現況

日本의 大學은 1949년의 學制改革에 의하여 新制大學으로 改編되면서 4年制가 되었다. 이에 따라 舊制高等學校는 特定 大學의 教養學部로 編入되거나 또는 大學으로 昇格하였다. 師範系인 東京高等師範學校나 廣島高等師範學校등도 一般大學으로 昇格하였다. 新制大學은 學制上 前期 2年은 教養學部, 後期 2年은 學部로 구분하고 있다. 學期는 우리나라처럼 前學期 後學期의 2學期制가 大部分이지만, 筑波大學, 東京基督大學 등 3學期制의 大學도 있다.

教科授業은 大部分의 科目이 1·2學期 通年授業으로 되어있어, 同一科目은 1년에 걸쳐 講義하고 있다. 講義時間도 2時間 連續 즉 90分 講義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學點을 單位라고 하며 每週 1時間, 15週 授業에 1單位가 주어진다. 卒業에 必要한 學點數는 大學과 學科에 따라 差異가 있다.

教科課程도 學校의 性格에 따라 特性이 있다. 여기에서 檢討하게 될 大學만 보더라도 東京大學은 가장 正統의이며 保守的인 國立大學이며, 京都에 있는 同志社大學은 基督系 私立의 名門으로 英語英文學 教育을 重要視하는 大學이다. 明治大學은 文學科 이름 그대로 文學에 偏重된 教育을 하고 있으며 筑波大學은 時代의 尖端을 간다는 一種의 實驗大學과 같은 特殊한 大學이다. 筑波大學은 다른 大學과는 달리 學群編成을 하고 있다. 英語學 專攻은 第一學群 人文學類 言語學科(英語)이며 英文學 專攻은 第二學群 比較文學類 イギリス 文學專攻과 アメリカ文學專攻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言語學科와 文學科는 卒業學點도 다르다. 授業時間은 75分이며, 每週 75分 授業, 15週에 1.5單位가 주어진다. 그러면 다음에서 이러한 大學들의 教養學部 英語科目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教養學部 英語

日本の 大學은 傳統的으로 教養教育에 重點을 두어왔으며 특히 外國語 教育에 대해서는 각별한 關心을 보이고 있다. 1970년 5월에 제출된 中央教育審議會答申「高等教養의 改革에 관한 基本構想」만 보더라도 個個의 教科目이나 教育課程에는 言及을 피하고 있으나, 유독 保健體育과 外國語에 대해서는 극히 具體的인 改善方向을 指示하고 있다. 外國語 教育에 관한 基本構想을 보면 「外國語 教育은 특히 國際交流上 活用能力의 育成에 努力해야 할 뿐만 아니라 必要에 따라서 學內에 設置된 語學研修施設에 의해서 實施하고 그 結果에 대한 能力의 檢定을 施行한다」로 되어있다. 그런데 日本 文部省은 이러한 提言에 참가하여 「外國語 教育은 그 學習을 통해서 外國의 文化에 접하고 그에 대한 理解를 深化시키는 目的을 지니고 있으나, 지금까지 意思疏通을 원활히 行使하지 못한 能力의 育成에 결함이 많았다. 더구나 장차 日本의 國際的인 交流를 積極적으로 추진하고 國際社會의 發展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重點을 두고 충실을 기할 必要性이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文部省은 4년후인 1974년에 再次 具體的인 改善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政府는 外國語 教育에 대해 至大한 關心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外國語科目은 教養學部の 教科目 중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教養學部の 教科目은 크게 一般教育科目, 外國語科目, 保健體育科目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單位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科 目	單 位	備 考
一 般 教 育 科 目	36	
外 國 語 科 目	16	第一外國語 8單位
保 健 體 育 科 目	4	
計	56	

外國語는 第一外國語(英語), 第二外國語로 구분되며 大部分의 大學이 英語는 8單位로 履修케 하고 있다. 授業은 1, 2학년, 4學期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東京大學 教養學部の 履修時數와 單位數를 보면 다음表와 같다.¹⁰⁾

科 目	每 週 時 數				單 位 數	
	1 學 期	2 學 期	3 學 期	4 學 期		
第一外國語 英語 {	文	4	4	6	6	8 ~ 10 必修
	理	4	4	4	4	

10) 東京大學 教養學部便覽 I. (前期課程) 1983, p. 52.

外國語의 單位는 每週 2時間, 15週(1학기) 授業에 1單位가 주어진다. 따라서 外國語의 授業時數는 一般科目의 二倍數가 된다. 그럼으로 英語科目의 總授業時數는 240時間이 된다. 그리고 教養學部의 教科目的 56單位는 卒業單位를 140單位로 推算할 때 卒業單位의 40%가 된다. 教養科目에서 外國語科目이 차지하는 單位의 比率은 약 28%가 된다. 이것은 곧 英語科目의 授業時數의 比率이며, 그 切半인 13%는 英語科目의 單位의 比率이 되는 셈이다.

筑波大學의 경우 外國語는 一般語學 4.5單位, 專門語學 4.5單位를 第一外國語로 履修하도록 되어 있다. 一般語學은 原則적으로 第一次年에 開設되고 外國語의 實用的 能力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英語의 基礎運用能力에 대한 共通實力試驗으로서 檢定試驗을 學年初와 學年末에 實施한다. 一般語學英語 중에서 1.5單位는 이 試驗에 合格하지 않으면 取得할 수 없게 되어 있다.

外國語 教室에 收容되는 學生數를 보면 最大 50명을 넘지 않도록 規制하고 20명 單位를 適正水準으로 묶어서 授業을 進行시키고 있다. 이처럼 小數人員 單位로 묶을 경우 여기에 所要되는 교수의 人力資源이 문제가 된다. 日本에서도 이 문제는 專任教員만으로는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人員이 教養學部에 配定되고 있다. 東京大學의 教養學部에서 英語를 담당하고 있는 教員數를 보면 教授 18명, 助教授 20명, 非常勤講師 32명, 外國人講師 6명, 助手 4명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教授方法을 보면 讀解力과 會話로 나누어 각 分野別로 다 教授가 담당하고 있다. 會話力 養成을 위하여 會話는 外國人講師가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만 하더라도 外國語 教育은 특히 會話力에 있어서 그다지 實效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당시 東京大學 改革準備調査會의 報告書에 의하면 「大學에 있어서 外國語 教育의 目的은…… 一般教養의 하나로써 外國의 文化와 社會에 관한 理解를 深化시키고, 專門的인 學門의 勉學과 國際的 交流의 手段으로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能力을 培養시키는 데 있다……이에 대해서 東京大學의 教養課程에서는 이러한 性格의 異質的인 두 種類의 外國語 教育이 막연히 구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第二의 目的을 위한 外國語 教育은 빈약한 實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¹⁾ 그러나 1970년 이후 外國語 教育에 대한 改善의 成果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理由로는 外國語 教育 改善 努力과 더불어 外國語 담당교수의 世代交替가 이루어져 20대에 수년간 外國에 留學했던 者들이 교편을 잡기에 이르렀고, 學生들 중에도 커뮤니케이션의 道具로서의 外國語에 대한 要求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自身이 直接 外國人과 接觸하거나 혹은 단기, 또는 장기코스로서 外國에 유학하는 기회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던 점등을 들 수 있다. 結局 教養學部의 外國語 教育의 方向은 言語와 文化 어느 한 分野에 치우치는 教育方法을 탈피하여 두 分野를 適切하게 調和시킬 수 있는 效率的인 教育方法을 추구하는데에 있다고 하겠다.

11) 東京大學改革準備調査會 第一次 報告書 1969. p. 127.

3. 英語英文學 專攻課程

專門教育科目에는 必修科目과 選擇科目이 있다. 그러나 必修科目에는 科目에 따라 選擇科目의 성질의 科目이 있으며, 選擇科目은 우리나라 처럼 學科의 選擇科目과 自由選擇科目이 있다. 東京大學, 同志社大學, 明治大學의 必修科目과 單位 및 選擇科目의 單位와 卒業에 必要한 單位數는 다음表와 같다.¹²⁾

大學	專攻必修科目	單位	最底必要單位	計	選擇科目 單位數	卒業에 必 要한 單位
東京大學	英語學概論	4	4			
	英文學史概說	4	4			
	米文學史概說	4	4	48	36	84
	英語學英米文學特殊講義	4	8			
	英語學英米文學演習	4	16			
	卒業論文	12	12			
同志社大學	英語演習	2	8			
	演習	3	9			
	英文學史	3	9			
	英文學概論	4	4	50	28	78
	英語學	4	4			
	英米思想史	4	4			
	外國書講讀	4	4			
	特殊研究	4	4			
明治大學	英文學概論	4	4			
	米文學概論	4	4			
	英語學概論(I)	4	4			
	英文學講讀	2	4	12		
	米文學講讀	2	4			
	英作家作品研究	4	4	36	32	68
	米作家作品研究	4	4	4		
	英語學講讀	2	2			
	英語表現法	2	2			
	卒業論文	4	4			

12) 東京大學 文學部便覽 1984, p. 182, 同志社大學 文學部 履修要項, 1984, p 10-12. 明治大學 文學部便覽, 1984, p. 25.

東京大學은 卒業에 必要한 最低單位가 84單位로 比較的 높은 편이며 그 중에서 必修科目은 48單位이다. 同志社大學은 最低 78單位 중에서 必修 50單位, 그리고 明治大學은 最低 68單位로 가장 낮으며 必修科目은 36單位이다. 이처럼 卒業에 必要한 單位나 必修科目과 選擇科目과의 單位의 比率이 大學에 따라 差異가 있다.

東京大學은 必修科目이 48單位, 選擇科目이 36單位이다. 必修科目 48單位는 卒業論文 12單位를 제외하면 概論, 概說로 되어 있는 英語學概論, 英文學史概說, 米文學史概說, 3科目만이 사실상 必修科目이다. 英語學英米文學特殊講義 8單位, 演習 16單位는 選擇科目이나 마찬가지로이다. 特殊講義에는 音聲學, 言語學演習, 古期中期英語概說 등을 비롯한 여러 語學分野의 科目과 イギリス小説研究, 19世紀アメリカ女性作家研究, シェイク스ピア研究등 여러 文學分野의 科目이 고루 多樣하게 開設되어 있고 演習에도 英會話 I, II 英文法 演習 I, II 등과 英詩, 戲曲등의 여러 語文學科目이 均衡있게 開設되어 있어서 選擇에 伸縮성이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語學과 文學의 比率도 選擇하는 學生의 立場에서는 對等하다고 할 수 있다.

選擇科目 36單位는 文學部の 科目과 他學部の 科目을 履修하는 말하자면 自由選擇科目이다. 그러나 文學部の 科目에는 英語英文學科가 제공하는 科目들도 들어 있다. 이 大學에서는 사실상 必修科目에 英文學史概說과 米文學史概說이 나란히 開設되어 있어 英米文學에 基本的으로 對等하게 取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同志社大學의 專門教育科目의 科目別 單位數는 다음과 같다.¹³⁾

專 門 教 育 科 目				計
必 修 科 目	選 擇 科 目 (I)	選 擇 科 目 (II)	選 擇 科 目 (III)	
42	12	8	14	76

먼저 必修科目을 보면 英語演習은 英語演習 A, B, C, D 각 2單位로 되어 있는 英語時間이며 1·2學年 4學期에 걸쳐서 履修한다. 演習은 演習 II, III, IV 각 3單位로 되어 있고, A코-스(文學)나 B코-스(語學)를 選擇하여 2·3·4學年에서 履修한다. 演習IV는 外國人 教授 9명이 담당하고 있다. 英作文은 英作文 I, II, III 각 3單位이며 1·2·3學年에서 履修한다. 英作文 I은 外國人 教授들이 담당하고 있다. 外國語講讀 3單位는 獨語, 佛語, 서반아語, 露語 講讀 중에서 한 科目 選擇하며 特殊研究 3單位는 英米文學分野 15科目 중에서 擇-하도록 되어 있다.

語學과 文學을 分野別로 보면 文學이 약간 많은 편이나 演習에서 어느정도 均衡을 유지하고 있다. 이 教科課程에서는 英作文 9單位를 履修케 하는데서 보는 것처럼 實技能力을 重視하고 있다. 그리고 英米思想史, 外國語講讀에서 보는 것처럼 英美文學의 周邊 뿐만 아니라 關聯 外國語에도 關心을 두고 있다. 이 大學에서는 1學年과 4學年에서 반드시 外國人 教授의 講義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特徵的이다.

選擇科目 I 12單位는 2·3學年の 學科 選擇科目이며 文學 4科目 語學 4科目, 英·米國研究등

13) 同志社大學 文學部履修要項, p. 15.

4科目 등 12科目이開設되어 있다. 選擇科Ⅱ 8單位는 4學年의 選擇科目이며, 語文學, 時事, 宗教, 通信, 通譯 등 15科目이 있다. 選擇科目Ⅲ 8單位는 우리나라의 自由選擇科目과 類似한 것이다. 이 大學에서는 수많은 科目을 指定하고 있다. 그 中에는 卒業論文, 敎職科目 등도 包含되어 있다. 敎職科目은 卒業에 必要한 單位에 包含되지 않는다. 다른 大學들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한 學年에 履修할 수 있는 單位의 上限線이 52單位이므로 學生의 選好와 能力에 따라 幅 넓은 選擇이 可能하다.

明治大學의 專門敎育科目의 科目別 單位數는 다음表와 같다.¹⁴⁾

專 門 敎 育 科 目			計
必 修 科 目	選 擇 科 目	自 由 選 擇 科 目	
36	12	20	68

必修科目 36單位 中에서 英·米文學講讀과 英·米作家作品研究 16單位는 選擇할 수 있으나 이것들이 모두 文學分野의 科目이다. 英語科目은 英語學概論 I 과 英語學講讀 뿐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文學과 語學의 比率이 3대1이 되고 있다. 이 比率은 우리나라 英語英文學科의 敎科課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典型的인 文學 偏重의 例이다. 이 敎科課程에서도 東京大學에서 보았던 것처럼 英文學과 美文學의 科目이 高루 對等하게 設定되어 있다.

選擇科目 12單位는 文學科의 選擇科目임으로 이 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文學科, 즉 日文, 英米文, 獨文, 佛文 學科, 演劇學科의 共通選擇科目이다. 英米文學科가 제공하고 있는 科目을 보면 다음과 같다.

英文學特殊講義, 米文學特殊講義, 英語演習, 米文學演習, 英文法, 英作文·會話, 英語學概論Ⅱ, 英語音聲學, 英語學特殊研究

이 科目들은 사실상 學科의 選擇科目이 되고 있다. 自由選擇科目은 명칭부터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他學部의 科目은 12單位 以上은 履修하지 못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筑波大學의 敎育課程은 다른 大學들과는 달리 獨自的인 編成으로 되어 있다. 卒業에 必要한 履修單位數의 基準은 다음表와 같다.¹⁵⁾

14) 明治大學 文學部便覽 p. 23.

15) 筑波大學概要, 1984, p. 12.

授業科目の区分	内 容	修得単位数	大學設置基準上の区分
1、専攻科目	當該専門分野のうちで、重點的に履修を深める分野に係る科目	40 單位以上	専門教育科目
2、基礎科目	當該専門分野に係る科目のうちで、専攻科目の履修のための基礎となるもの	12 單位以上	
3、関連科目	A、當該専門分野の履修に関連して、周辺領域から履修範囲が指示される科目 B、當該専門分野の履修に関連して、學生が自由選擇により履修する科目	28 單位以上 12 單位以上	一般教育科目
4、共通科目			
総合科目	A、學群ごとに、當該學群の教育目的に即して編成される比較的廣域的な総合科目 B、學類ごとに、當該學類の性格に應じて編成される比較的範圍の狭い総合科目 C、新入生に對し、最初の1學期に集中的に實施する科目(フレッシュマン・セミナー)	13 單位	
體育	全在學期間を通じて、健康管理及び體力増進を目的とする科目	4 單位	保健體育科目
外國語	第1外國語 専門語學(4單位以上)及び一般語學(4單位以上)に區分し、一般語學については、實用的能力の訓練を中心とする 第2外國語 實用的能力の訓練を中心とする	8 單位以上 4 單位以上	外國語科目
國語	自己の思想を正確に表現するための技術の修得を目的とする科目	2 單位	
情報處理	情報科學に関する基礎的な教育を目的とする科目	2 單位	一般教育科目

言語學(英語)과 比較文學(イギリス文學 및 アメリカ文學)의 専門教育科目과 單位는 다음과 같다.¹⁶⁾

專 門 教 育 科 目					
學 科	科 目	専攻科目	基礎科目	関連科目(A)	計
言語學(英語)		40	12	28	80
比較文學	(イギリス文學) (アメリカ文學)	43.5	14.5	28.5	86.5

16) 筑波大學 履修要覽, 1985, p. 72, p. 84.

言語學(英語)의 必須科目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單位).

基礎科目: 言語學概論(3) 音聲學概論(3)

專攻科目: 卒業論文(6)

基礎科目의 나머지 6單位는 오리엔트의 言語와 文化, 舊約聖書概論 등 8科目 중에서 選擇한다. 專攻科目의 나머지 34單位 중 31單位는 英文法演習, 英作文演習, 意味理論研究 등 23科目 중에서 選擇하고, 3單位는 一般言語學研究, 心理言語學研究 등 12科目 중에서 選擇한다. 關聯科目 28單位는 第一學群, 第二學群의 專攻科目과 기타에서 選擇하는 말하자면 自由選擇科目이라고 할 수 있다.

比較文學(イギリス文學)의 必須科目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單位)

基礎科目: 比較文學入門(3) クラスセミナー(2.5) 人間論(3)

專攻科目: 外國書講讀(4.5) 卒業論文演習(1.5), 卒業論文(6).

卒業論文演習은 英文으로 論文을 作成하는 것을 指導하는 科目이다. 基礎科目의 나머지 6單位와 專攻科目의 28.5單位는 言語學科에서 보았던 것처럼 매우 多樣하고 幅 넓은 選擇의 餘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大學에서는 教育課程부터가 大學設置基準上의 區分과도 다르다. 專門教育科目도 英語學, 美文學을 각각 獨立시키고 있다. 基礎科目을 重視하고 가능한 必須科目을 줄이고 있다. 選擇科目이 多樣하고 選擇의 幅이 넓은 것은 물론, 基礎科目부터 段階적으로 점차 幅넓은 知識을 均衡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科目配定에도 細心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다음에는 卒業論文을 살펴보기로 한다. 卒業論文은 舊制大學 때부터 傳來된 傳統的인 制度이다. 舊制大學 時代에는 學科工夫의 成績에 관계없이 卒業論文이 學生의 能力을 評價하는 基準이었다. 新制大學 이후 學生數의 急増과 學問의 水準 低下등의 理由로 이 制度에 대한 反對論이 대두되었고 制度上으로는 卒業論文에 대신하여 그것에 該當하는 單位를 指定된 科目에서 取得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大部分의 大學이 如前히 卒業論文 制度를 施行하고 있다. 卒業論文은 大學에서 4年間 學習한 知識의 總計算으로 간주되고 있을뿐 아니라 장차 研究生活을 계속하게 되는 契機가 될 것으로 期待되고 있는 것이다.

卒業論文은 4學년에 한해서 履修할 수 있으며 論題에 따라 學年初에 指導教授를 정하고 個別 또는 集團의 論文作成上의 指導를 받는다. 論題에 따라 專攻科目 履修過程에서 規定的 制限을 받기도 한다. 例를 들어 明治大學의 경우 英國作家나 作品에 대해 論文을 쓰는 學生은 必修 選擇에서 英作家作品研究 4單位 以上을 履修해야 한다. 論文은 日本語로 쓰고 있기도 하나 英文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論文의 單位는 同志社大學 처럼 6單位를 選擇科目에서 배정하고 있는 大學도 있으나, 大部分의 大學은 最低 4單位 以上을 必須科目에서 배정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東京大學은 12單位, 筑波大學은 6單位, 그리고 名古屋大學은 무려 20單位를 배정하고 있어 舊制大學의 精神이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英語教育科와 敎職課程 履修學生과 關聯하여 敎職科目의 制度를 살펴보기로 한다. 敎職課程을 履修한 學生은 우리나라의 一般大學에서 그러는 것처럼 敎師의 免許를 받을 수 있다. 免許種類는 中等學校 1級과 2級, 高等學校 2級이며, 1級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大學院에서 所定の 單位를 더 履修해야 한다. 單位는 自由選擇科目에서 履修할 수 있으나 敎職專門科目은 卒業에 必要한 單位로 認定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學生 보다도 專門教育科目을 덜 履修하게 되는 畵단은 없다. 敎職專門科目은 다음表와 같다.

免許狀の類	敎職に關する專門科目	必修				左記以外に關する專門科目目 大學が認める	最低所要單位數	
		教育原理	「教育心理學」 「青年心理學」 又は「教育心理學」	「道德教育の研究」	教科教育法			教育實習
中學校敎諭一級普通免許狀		3	3	2	3	2	1單位以上	14
高等學校敎諭二級普通免許狀		3	3		3	2	3單位以上	14

敎師 免許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敎科課程 履修 過程에서 指定된 科目을 履修하도록 권유한다. 예를 들면 敎員은 市民的 敎養의 基礎라는 意味에서 一般教育科目 중에서 日本憲法, 哲學, 倫理學 또는 宗教學을 履修하여야 한다. 英語敎師가 되기 위해서는 義務적으로 履修해야 하는 科目이 있다. 英會話, 英語音聲學, 英作文, 기타 學科에서 指定하는 科目등이 그것이다. 훌륭한 敎師는 敎師로서의 專門知識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 敎養있는 模範的인 市民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概觀한 日本의 大學 敎科課程을 볼 때 무엇보다도 大學의 自律性이 顯著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 각 大學의 敎養英語와 英語英文學 專攻課程에 나타나는 몇가지 特徵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敎養英語의 授業時數가 높고, 특히 意思疏通 能力을 기르기 위한 實用英語教育을 강화하고 있다. 語學教室의 適正水準을 20명으로 하고 50명이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會話力을 기르기 위하여 外國人이 英語를 담당하고 있다.
2. 語文學과 기타 分野의 均衡있는 敎科課程 運營을 위하여 分野別로 多樣한 科目을 설정하여 履修者에게 넓은 選擇의 幅을 제공하고 있다.
3. 가능한 必須科目을 줄이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科目만을 嚴選하고 있다.
4. 英作文 敎育의 強化 등으로 실기 敎育에 주력하고 있다.
5. 英文學과 美文學을 대등하게 淸급하고 있다.
6. 반드시 外國人敎授의 講義를 받도록 하고 있다.
7. 한 學年에 取得할 수 있는 單位의 上限線이 높다.

8. 卒業論文에 높은 單位를 配定하고 있다.
9. 敎職專門科目은 卒業에 必要한 單位로 認定하지 않는다.
10. 卒業論文의 論題에 따라 또는 敎職課程을 이수하는 學生은 指定된 科目을 履修해야 한다.

IV. 우리나라 大學 敎養英語 및 英語英文學 敎育과 그 問題點

우리나라 大學의 敎育課程은 敎養課程과 專攻課程으로 구분되며 두 課程은 각각 必須科目과 選擇科目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專攻課程에는 主專攻課程, 副專攻課程, 敎職課程 및 自由選擇科目이 包含되어 있다. 師範系 學科는 專攻必須科目 學點外로 敎職科目 學點을 履修하여야 하며 一般大學에서는 副專攻課程에서 敎職課程을 履修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敎育課程은 元來 實驗大學 運營을 위하여 施行되어온 것으로 漸次 實驗大學의 諸般 特性이 有名無實化해짐에 따라 副專攻課程의 運營등이 不實해졌으며 각 課程別 學點 配定의 比率도 주어진 範圍內에서 약간의 變動을 가져오고 있다.

英語는 敎養課程에서 履修하는 必須科目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英語英文學 專攻課程은 크게 나누어 人文系 英語英文學科와 師範系 英語敎育科에서 敎育하는 두 가지 類型의 敎科課程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敎養英語 敎育의 現況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敎養英語

國際語로서의 英語는 일찍부터 重要視되어 왔다. 따라서 보다 效率的인 敎育方法의 開發을 위하여 그 改善方案이 꾸준히 講究되어 왔다. 그 方案의 하나로서 從來의 讀解 一邊倒의 敎授方法을 지양하고 意思疏通의 能力을 培養하기 위한 實用英語 敎育에 큰 關心을 기울이게 되었다. 1964년 University Language Lab Association의 창립을 전후하여 각 大學은 言語實習室을 利用하여 英語의 聽取力과 會話 能力의 伸長을 위한 實用英語 敎育을 強化해갔다. 그러나 敎養英語 敎育의 現況은 그 重要性이 날로 強調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現實的인 狀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英語敎育의 不振에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으나 그 중의 하나는 授業時數 不足이다. 敎養英語에 배정된 學點이나 授業時數는 一定하지 않으나 대체로 6學點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 다음에서 任意로 10개 大學을 선정하여 敎養英語 履修學點을 알아보기로 한다.¹⁷⁾

17) 우리나라 각 대학요람(1984, 1985) 참조.

〈표 1〉

학교명	교양이수 총 학점	교양영어 학점	교양총이수 학점에 대한교양영 어비율 (%)	이 수 방 법			
				1 학년		2 학년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서울대학교	44	6	13.6	3	3		
연세대학교	44	9	20.5	3	3		3
고려대학교	42	6	14.3	3	3		
외국어대학교	34	12	35.3	3	3	3	3
경북대학교	43	6	14.0	3	3		
충북대학교	42	6	14.3	3	3		
충남대학교	42	6	14.3	3	3		
부산대학교	42	4	9.5	2	2		
전남대학교	42	6	14.3	3	3		
제주대학교	45	6	13.3	3	3		
평 균	42	6.7	16.34				

1. 교양영어 이수학점

위에서 보는 것처럼 敎養英語의 學點은 最高 12學點에서 最低 4學點까지는 큰 差異를 보이고 있으나 10개 大學 중 8개 大學이 6學點이며 그 平均值는 6.7이다. 이 數値는 敎養履修 總學點의 16% 정도가 된다. 그러나 敎養學點은 卒業學點 140의 33%에 불과하며 英語의 學點은 卒業學點의 5%에도 未達한다. 그리고 英語實習時數를 敎養의 二倍數로 하고 있는 大學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授業時數의 平均值를 9로 추정다면 敎養英語의 總授業時間은 144時間이 된다. 大部分의 大學이 1학년에서만 英語를 가르치고 있으며 2학년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大學은 延世大學校와 外國語大學校 뿐이다.

英語時間에 收容되는 學生數에도 문제가 있다. 그동안 각 大學의 無分別한 學科增設과 學生增募에 의한 大學人口의 急増은 이른바 量的 擴大에 따르는 質的 低下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多數學生을 한 教室에 收容한 大單位 授業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敎授人力의 不足, 施設未備의 문제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大學에서는 敎養教育을 輕視하는 傾向이 있어 보인다. 그 증거의 하나로 敎養科目을 담당하는 敎授는 대개 外部講師가 아니면 新任 初年敎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敎養教育의 輕視는 必然的으로 敎養英語 教育을 弱화시키게 된다. 한 때 敎養英語의 廢止를 云謂한 事例까지 있었던 것은 實로 놀라운 發想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英語英文學 專攻課程

人文系 英語英文學科와 師範系 英語教育科의 專攻課程은 敎職課程을 제외한다면 그 內容이 大同小異하다는 論難이 있어 왔다. 그러나 近間에 와서는 英語教育課의 專攻課程이 師範大學教育의 目標에 부응하여 特殊化되어가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英語教育科가 選定한 必須科目의 性格이나 語學과 文學의 比率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에서 任意로 10개 大學을 選定하여 英語英文學科와 英語教育科가 각 設定한 必須科目을 살펴보기로 한다.

英語英文學科 專攻必須 科目

大學名	科 目 (學點)	學 點 (科目數)
서울대 학교	英文學概觀 I(3), 英文學概觀 II(3), 英文學概觀 III(3), 美國文學概觀(3), 英作文(3), 英語學概論(3), 英語史概觀(3)	21(7)
연세대 학교	스피치 I(3), 스피치 II(3), 라이팅(3), 英文學概觀 I(3), 英文學概觀 II(3), 英語學概論(3), 英語發達史(3), 卒業論文(3)	24(8)
고려대 학교	英語作文 및 會話(3), 英文講讀(3), 英美小說概說(3), 英美戲曲概說(3), 英文法(3), 英語學概論(3), 英美詩概說(3)	21(7)
경북대 학교	19세기 英美小說(3), 高級英文法(3), 19세기 英美詩(3), 英語音韻學(3), 20세기 英國小說(3), 現代英美戲曲(3), 셰익스피어 II(3), 문예評論(3), 英語統辭論(3)	27(9)
충북대 학교	英文學史 I(3), 英作文(3), 英美戲曲(3), 英文學史 II(3), 英美小說論(3), 英語音聲學(3), 英語學概論(3), 美國文學史(3), 英美詩概論(3), 英語史(3)	30(10)
충남대 학교	英文學史(3), 英文法(3), 美國文學史(3), 英語音聲學(3), 英語史(3), 英美小說論(3), 英作文 III(3), 셰익스피어(3)	24(8)
부산대 학교	英文學概論(3), 英語學概論(3), 英語音聲學(3), 英文學史(3), 美國文學史(3), 英語統辭論(3), 셰익스피어學說(3), 英美小說論(3), 英美文學批評(3)	27(9)
전남대 학교	英語音聲學(3), 英文法 I(3), 英詩 I(3), 英文學 I(3), 셰익스피어(3), 英美戲曲(3), 英國文學史(3), 美國文學史(3)	24(8)
전북대 학교	英語學概論(3), 英文法 I(3), 英國文學 I(3), 英文學評論(3), 英美戲曲(3), 英國文學史(3)	18(6)
제주대 학교	英語會話 I(3), 英文學概觀 I(3), 英文學概觀(3), 意味論(3), 英詩 II(3), 英作文 I(3), 統辭論 I(3), 音聲學(3)	24(8)

英語教育科 專攻必須 科目

大學名	科 目 (學點)	學 點 (科目數)
서울대 학교	英語會話(3), 英作文 I(3), 英語應用音聲學(3), 英文法(3), 英語學概論(3), 英文學概觀 I(3), 英文學概觀 II(3)	21(7)
고려대 학교	英美散文(3), 英文法(3), 英語會話(3), 英語作文(3), 英語教育論(3), 英語教材研究 및 指導法(3)	18(6)
외국어대 학교	英講讀 I(6), 英作文 I(4), 英文法(3), 英會話 I(2), 英言語實習 I(2), 英美文學概論(3), 英講讀 II(4), 英會話 II(1), 英作文 II(1), 英言語實習 II(4), 英語學概論(3), 英語音聲學(3), 英語發達史(3), 英會話作文(3)	42(14)
경북대 학교	英語學概論(3), 英語音聲學(3), 19세기 英美詩(3), 英文學史 I(3), 英文學史 II(3), 英文法(3), 셰익스피어(3), 英語統辭論(3), 英國小說(3)	27(9)
충북대 학교	言語學入門(3), 英作文(3), 英文學概觀(3), 서양文學入門(3), 英文法 I(3), 英語學概論(3), 高級英語會話(3), 英語音聲學(3), 美國文學史(3)	27(9)
부산대 학교	英文學概論(3), 英語學概論(3), 英語音聲學(3), 英語文法(3), 英語學特講(3), 英語統辭論(3), 英美小說(3), 英語作文 III(3), 英語테스팅法(3)	27(9)
전남대 학교	英語音聲學(3), 英語史(3), 英文法 I(3), 英文學史 I(3), 美國文學史(3), 英作文 I(3), 英語會話 I(3)	21(7)
공주사범대학	英語音聲學(3), 英語學概論(3), 英文法 I(3), 英文學概論(3), 英作文 I(3), 英語會話(3)	18(6)
제주대 학교	英語會話 I(3), 英語學概論(3), 英美小說講讀 I(3), 英語音聲學(3), 英語文法 I(3), 英語作文 I(3), 英國文學概觀(3)	21(7)
경희대 학교	英語音聲學(3), 英語學概論(3), 英文法 I(3), 英國文學 I(3), 英文學史 I(3), 英文學背景(3), 英作文(3)	21(7)

外國語大學校를 제외한 모든 大學이 科目당 3學點 3時數로 되어있고 科目數는 6~10科目, 18~30學點을 配定하고 있다. 大部分의 大學이 가장 基本的인 科目을 設定하고 있으나 學校에 따라서는 細分化된 科目名稱도 볼 수 있다. 두 學科에서 必須科目으로 提供하고 있는 科目을 많은 大學이 配定하고 있는 차례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내는 配定하고 있는 大學의 수)

- 英語教育科 1 英文法(10) 2 英語音聲學(9) 3 英作文 (9) 4 英語學概論 (8) 5 英會話 (7) 6 英文學史 또는 教育概觀 (6) 7 英小說 (3)
- 英語英文學科 1 英文學史 또는 英文學概觀 (8) 2 英語學概論 (6) 3 英語音聲學 (6) 4 美文學史 (5) 5 英作文 (5) 6 英文法 (6) 7 英美小說 (5) 8 英美詩 (5) 9 英美戲曲 (5) 10 Shakespeare (4) 11

英語史 (4)

英語教育科는 上記 7科目外는 각 大學이 나뉘대로 1科目씩 설정하고 있는 科目이기 때문에 順位를 매길 수가 없다. 7科目을 分野別로 보면 語學 3, 技能 2, 文學 2로 되어 있다. 英語英文學科의 11科目을 分野別로 보면 文學 6, 語學 4, 技能 1로 되어 있다. 英語英文學科는 文學分野에 큰 比重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英語教育科는 語學과 技能分野를 重視하고 있다. 두 學科의 分野別 科目 比率를 보면 다음 表와 같다.

英語教育科, 英語英文學科 專攻必須 科目比率(%)

英 語 教 育 科			英 語 英 文 學 科		
語 學	文 學	技能 및 其他	語 學	文 學	技能 및 其他
40.7	27.2	32.1	31.2	56.3	12.5

英語英文學科나 英語教育科의 科目이 그 核心 內容이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敎科課程 運營上 實際적인 면에서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必須科目에서 特異한 것은 延世大學校의 必須科目에서 卒業論文에 3學點을 配定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適切하고 當然한 처사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大學은 卒業의 必須要件으로 卒業學點과 關係없이 卒業論文 또는 卒業試驗을 과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現行 大學院 制度나 거의 다를 바 없으며 쉽게 首肯할 수 없는 일이다. 常識적으로 大學은 所定の 學點을 履修하면 卒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卒業論文이 必要不可缺한 것이라면 마땅히 正當하게 學點을 配定하여 이에 상응한 責任있는 指導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外國語文學을 論題로 하여 論文을 作成한다는 것은 現在의 大學生 水準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特別한 指導를 必要로 하는 일이다.

專攻選擇科目을 살펴보면 그 內容이 多樣하고 包括的이다. 그러나 특히 英語英文學科의 경우 語學이나 技能科目에 비해 文學科目이 壓倒적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選擇科目의 設講學點數는 選擇履修學點의 二倍 정도로 되어 있으나 文學科目에 비해 다른 分野의 科目은 選擇의 伸縮性이 많지 않다. 더구나 學生이 1學期에 履修할 수 있는 學點의 上限線은 18學點이다. 물론 B學點이면 21學點, A學點이면 24學點까지도 履修할 수 있으나 이것은 一般的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一般學生들은 選擇의 餘地가 거의 없으며 各分野別 科目을 選好에 따라 自由롭게 履修할 수가 없는 것이다.

敎育課程의 문제는 어느 特定한 學科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英語教育科처럼 敎職課程의 學點을 專攻必須科目으로서 履修해야 하는 경우, 또는 英語英文學科의 學生이 敎職課程을 履修할 경우 敎職科目 20學點 以上을 140學點內에서 履修해야 한다는데는 문제가 있다. 즉 敎職課程 履修者는 다른 學生보다 專攻選擇이나 기타 領域에서 20學點內外를 取得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將來 英語敎師로서의 資質을 갖춰야 될 學生이 專攻分野와 敎職課程 두 가지가 다 소홀히 될 수가 있다. 사실상 英語英文學科의 경우 같은 學科 學生들이 大部分이 受講하고 있는 科目을 敎職科目과 重複됨으로 못 듣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당해 學

生에게 心理的으로 否定的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敎職課程 履修者나 師範大學 學生들에게는 다른 一般學生들과 均等한 學問의 機會를 제공해주지도 않으면서 將次 그들이 활용한 敎師가 되어주기를 期待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問題點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大學의 敎養英語와 英語英文學 專攻課程教育을 日本의 大學의 教育現況과 比較 考察해 본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問題點을 指摘할 수 있다.

1. 敎養英語 授業時數가 日本의 大學에 비해 크게 不足하다. 日本의 大學의 總授業時數 240時間에 대해서 우리나라 大學은 144時間 정도에 불과하다. 日本의 大學이 敎養英語 教室의 收容人員 適正水準을 20명으로 定하고 50名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大學은 지나치게 많은 人員을 收容하여 授業을 進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外國人敎授나 講師가 敎養英語의 일부를 擔當하는 例는 많지 않다.

2. 專攻必須科目이 學校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學生들에게 그만큼 選擇의 餘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詩, 小說, 戲曲, 評論 등 genre별로 구분하거나 統辭論 意味論등으로 專門化하기 보다는 보다 基本的이고 總括的인 科目을 嚴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3. 英會話 英作文 등 實技教育이 未洽하다. 英語를 專攻하는 者라면 文學을 專攻하든 語學을 專攻하든간에 英語를 구사할 수 있는 基本的인 能力이 있어야 한다. 특히 英語敎育科 學生이나 敎職을 希望하는 英文科 學生들에게는 이러한 科目이 必須的이다.

4. 지나치게 文學分野에 偏重된 敎育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選擇科目의 幅이 넓지 않은데에 문제가 있다. 더우기 學生이 1학기에 履修할 수 있는 學點의 上限線을 18學點으로 制限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統制로 여겨진다.

5. 日本의 大學이 卒業論文에 높은 學點을 배정하고 指導하는데 비해 우리는 學點을 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正常的인 論文指導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6. 英語敎育科를 包含한 師範大學 學生과 敎職課程 履修 學生들은 다른 學生들보다 專攻課程의 學點을 덜 履修하고 있다. 日本의 大學은 한때 우리나라 大學도 그랬듯이 敎職專門科目을 卒業學點으로 認定하지 않는다.

V. 結 論

우리나라는 英語와 英語英文學을 敎育한다는 점에서는 日本과 類似한 條件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敎育政策을 수행한다는 理念에 있어서는 根本的으로 큰 差異가 있다. 舊韓末의 우리나라 英語敎育은 英語文化圈과의 不可避한 接觸이 그 必要性을 낳게 했던 것이며 國家의 近代化 政策

의 一環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日本의 英語教育은 近代化의 手段으로 「英學」政策을 시행한 이래 一貫性 있는 教育政策 수행을 통하여 이른바 그들의 ‘따라잡기식’ 近代化를 成功的으로 이끄는 데 一翼을 담당하였다.

日本이 大學 教養英語에 큰 比重을 두고 그 教育의 改善方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教育政策에 뒷받침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大學이 英語教育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過多한 成就意慾과 速戰速決式의 效果期待가 內實보다는 外的인 形式위주의 政策을 誘發하게 하였고 빈번한 制度의 改革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現行 大學의 教養英語 教育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 大學은 日本의 大學에 비해 授業時數가 크게 不足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語學教室의 운영에 있어서는 日本의 大學이 收容人員 適正水準을 20명으로 정하고 5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大學은 適正水準을 一定하게 규제하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外國語 教育에 있어서 多數의 學生을 대상으로 한 授業이나 言語 訓練時間의 不足이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英語教育의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教養課程의 強化 또는 再編成등이 考慮될 수 있으며 그 合理的 運營을 위하여 政府나 大學當局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英語英文學 專攻教育에 있어서 우리나라 大學의 人文系와 師範系의 二元化 教育과 日本의 一元化 教育은 다만 制度上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師範系 大學은 卒業學點內에서 教職科目 學點을 履修하고 日本의 大學은 卒業學點에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큰 差異가 있다. 教職者가 되기 위한 特殊訓練 때문에 다른 平凡한 學生들이 正常的으로 履修하고 있는 專攻科目을 履修하지 못한다는 것은 不合理하다. 그리고 有能한 教師를 養成하기 위해서는 教育上 細心한 配應가 뒤따라야 한다. 專攻課程에 대해서 言及한다면 英語教育科의 경우 英語會話, 英語音聲學, 英文文 등 가장 基本的인 科目이 우선적으로 개설되어야 함은 물론, 英文學科 教職科目 履修者의 경우에는 이러한 科目들을 必須的으로 履修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師範系 學生의 均衡있는 知識 習得과 質的 向上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 法大와 藥大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卒業學點을 上向조절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必須科目의 선정에 있어서나 選擇科目의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日本의 大學이 根本的으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日本의 大學들은 教科課程의 운영면에서 우리보다도 自律性이 있어 보인다. 사실상 必須科目의 수가 많지 않으며 가능한 選擇의 幅을 넓혀주고 있다. 그리고 學期당 履修學點의 上限線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다. 우리나라 大學도 必須科目을 嚴選하여 科目의 수를 조정하고 가능한 選擇科目을 多様하고 여유있게 설정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能力과 選好에 따라 자유롭게 履修할 수 있는 機會를 擴大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어느 한 分野에 偏重된 교육을 하게되는 폐단도 어느정도 解消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大學의 教科課程의 制度上 하나의 큰 차이는 卒業論文에 學點을 配定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 大學과 높은 學點을 配定하고 있는 日本의 大學과의 차이이다. 現在의 大學水準에서 특히 外國語文學을 전공하는 學生이 大學院生과 같은 制度에서 論文을 作成한다는 것

은 首肯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制度가 반드시 必要한 것이라면 마땅히 所定의 學點과 더불어 責任있는 指導를 함으로써만이 이 制度에 담겨있는 教育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政府는 最近 教育改革審議委員會를 發足시켜 大學 發展을 위한 諸般 政策을 樹立하기 위한 努力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大學의 教育課程에도 보다 合理的인 模型이나 運營方案이 개발되어 大學의 英語教育和 英語英文學 教育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어주기를 期待한다.

Summary

Comparative Study of Teaching English Language
and English Literature in Korea and Japan
— With Emphasis on University Curricula —

Kim Soo-jong

This paper aims at introducing certain improvements in the Korean Universities' Genral Freshman English and the Major Course in English Education by examining and analyzing curricula of Japanese Universities.

The results of the camparisons between the two curricula are as follows ;

1. Students in Japanese Universities are required to take 240 lecture hours in General Freshman English, but Korean students take 144 lecture hours of the same.

2. Comparing the average class size, there are about 20 students in English classes in Japanese Universities, while in Korean Universities the class size differs very much with no fixed limit.

3. Students of the College of Education must take their teacher education courses as compulsory subjects, and so they don't take enough specialization subjects in comparison to teacher education subjects. Therefore, for the sake of being good teacher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take further courses for graduation, like the students College of Law and College of Medicine.

4. Compared with Korean Universities, Japanese Universities have a small number of Compulsory Specialization subjects but they open various chosen subjects in order to give a wider scope of choice to the students.

5.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two curricula is that the graduation thesis is admitted for many points in the Japanese University while it is not in the Korean University. It is desirable for students to take the required subject corresponding to the graduation thesis or exam in Korea.

As I have mentioned the two curricula of Japan and Korea,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authorities to establish a long-term and consistent educational policy in order to carry out efficient English education.